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을까?

'아, 내가 잘하는게 없어서 정말 다행이다!'

미국 계신 어느 집사님이 한국에 잠깐 나왔던 길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 분이 가시면서 나를 가리켜서 이렇게 쓰신 것을 봤다. "앞에서 보아도 목사고, 옆에서 보아도 목사고, 뒤에서 보아도 목사다." 나는 그 글을 읽고 절망했다. 내가 가진 열등감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노래도 잘하고 싶고, 춤도 잘 추고 싶고, 운동도 잘하고 싶고 공부도 잘하고 싶었다. 그래서 앞에서 봐도 목사고 뒤에서 보아도 목사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다. 그냥 목사밖에 할 게 없다. 지금은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린 시절부터 성장하면서 신학교에 가고 목회를 하면서 그건 나에게 너무나 큰 열등감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 나는 재주가 없어.' 그런데 지금은 감사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만 붙잡고 사는 것 같다. 잘하는 게 없으니까 계속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밖에 할 게 없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후 4:7)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젊은이의 감각이 있거나, 뛰어난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 자신을 드리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하셨고, 내 안에 살아 계신 주님이라는 사실,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더는 나의 약함 때문에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우리가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질그릇 같은 나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질그릇인 내 존재만 보니까 실망스럽고, 슬프고, 낙심되어 좌절한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했다. 질그릇이 '난 왜 질그릇일까' 하면서 실망할 이유가 없다. 우리의 문제는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눈이 뜨이면 내 연약함이 더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번은 페이스북에서 내 설교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어떤 분이 내 설교를 너무 느려서 못 들겠다는 것이다. "이 설교는 할아버지 할머니나 듣지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 들을 수 없다." 아내가 나에게 괜찮냐고 물어봤다. 사실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의 문제를 다루어주셨다.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 하지 마. 고린도전서 1장 27-29절 말씀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약한 것은 죄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셨다. 이 사실이 처음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믿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해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성경을 펼쳐들고 울었다. 그게 그렇게 울 일인가 싶을 정도로 많이 울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일부러 쓰신다. 약한 자와 멸시받는 자를 택하여 사용하신다. 그러면 된 것이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달변가도 아니고 느려터져서 할머니 할아버지만 듣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라도 쓰시겠다고 한다면 충분합니다." 받아들이기로 했다. 정말 믿기로 했다. 그리고 엄청나게 달라졌다.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여기저기서 말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 이제 몇 년 후면 은퇴하게 된다. 이렇게 빨리 올지 몰랐다. 나는 나이 먹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 - 유기성, 김용의 외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SUNDAY SERMON SERIES 주일설교시리즈

LORD, TEACH US TO LOVE!

"주여, 사랑을 가르쳐 주소서!"

창립 1974년 11월 3일

주보 제 45권 30호 2019년 7월 28일

* 표는 일어섬 (Standing if you can)

사회: 기우석 집사

경배와 찬양 (Praise)

One Thing Praise

시작기도 (Opening Prayer)

기우석 집사

설교 (Sermon)

마태복음 19:16-30
Matthew 19:16-30

Darlene Line 선교사
통역: 박태열 목사

"Change—Is it possible?"

봉헌 (Offering)

봉헌특주 (Offering Special Music)

연석윤 집사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박태열 목사

교회소식 (Announcements)

사회자

파송찬양 (Closing Hymn)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박태열 목사

[주일예배 안내]

주일대예배 / 11am
주일학교 / 11am
중고등부예배 / 11am

[주중예배/모임 안내]

새벽예배 / 5:30am(화-토)
Acts29 기도 / 6am(주일)
수요예배 / 8pm
속회 / 매달 1회 셋째주
성인성경공부 / 1pm(매달 첫째, 셋째주일)
한국학교 / 3pm-6pm(토)

[정기기도모임 안내]

남선교회새벽기도모임 / 5:30am
(매달 첫째주 토요일)
선교부기도모임 / 7pm(매달 둘째주 화요일)

[다음주일 대표기도]

천옥용 권사

교회 / 교우 소식

오늘 처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 다음 주일은 성찬주일입니다.
- ◆ 매일성경 7월 8월호가 나왔습니다. 한 권당 \$7입니다. 구입은 이미경 권사님께 문의하세요.
- ◆ 증보기도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를 작성해서 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 도미니카공화국 신현재 선교사님으로부터 기도편지 도착했습니다. 친교실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 ◆ Atlantic City 보드워전도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있습니다. 전도교육이 친교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전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복장은 위에 하얀색에 아래 청바지입니다.
- ◆ 사택오픈하우스가 오늘 오후 4시 이후에 있습니다. 모든 교인분들을 초청합니다. 사택주소는 617 Herzal Ave., Northfield, NJ 08225 입니다.
- ◆ 국내선교 Shalom Philly.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125년) 메시아닉 주이쉬 선교단체인 Chosen People Ministries 에서 처음으로 필라델피아에서 유대인 선교인 Shalom Philly 를 시작합니다. 8월 2일 (금) 저녁 6시부터 4일(일) 저녁 7시까지 입니다. 다 임목사님과 박준빛 참석합니다.
- ◆ 담임목사님 Shalom Philly 참석관계로 8월 3일 토요일 새벽설교 없습니다.
- ◆ 이번주 수요일예배때 연석운 집사님 파나마선교 보고와 간증 있습니다.

부서별 소식

- ◆ 가족수련회가 8월 10일(토)-11일(일) 1박 2일로 Sandy Cove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느헤미야 8:10) 입니다. 월드말알선교회 단장님이신 이다윗 목사님께서 강사님으로 오십니다.
- ◆ 담임목사 휴가: 8월 13일(화)부터 8월 21일(수)까지 입니다. 휴가기간동안에 새벽설교 없습니다.
- ◆ 8월 18일 주일예배때 박태익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 ◆ 제단헌화헌금: 주일예배에 제단헌화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헌화담당 스케줄에 싸인업을 하시고 헌금봉투에 "제단헌화"라고 쓰시고 내시기 바랍니다. 헌화하시는 분의 이름으로 정성껏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주일에는 \$20, 특별한 주일 (창립기념일, 부활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등)에 하실분은 \$35 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최미경 집사께 해주세요.
- ◆ 친교는 윤여옥 집사님께서 헌화는 연선희 집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남선교회]

8월 3일 토요일 새벽예배는 남선교회 주관으로 드립니다. 예배후 간단한 아침식사 준비됩니다.

[증보기도요청]

찬양사역자, 성가대 반주자, Youth 전도사, Children 전도사를 보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원할 수 있도록 재정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중모임/행사

7월 28일(일) 11:00am 원평열린예배
2:00pm 보드워전도
4:00pm 사택오픈하우스
8월 2일(금)-4일(일) 국내선교 Shalom Philly
8월 10일(토)-11일(일) 가족수련회

[선교후원]

- ◆ 파송선교사 가정인 문열림 선교사, 주은혜 선교사 (기쁨, 거룩) 가정을 물질로 후원하실 분은 헌금봉투에 "문열림 선교사 가정"이라고 쓰시고 내시면 됩니다.
- ◆ 협력선교사 가정인 김희기 선교사, 박경선 선교사 (진서, 진후) 가정을 물질로 후원하실 분은 헌금봉투에 "김희기 선교사 가정"이라고 쓰시고 내시면 됩니다.
- ◆ 협력선교사 가정인 신현재 선교사, 강지혜 선교사 가정을 물질로 후원하실 분은 헌금봉투에 "신현재 선교사 가정"이라고 쓰시고 내시면 됩니다.

지난주일 통계

헌금총액	\$4,583	출석총인원	25
십일조	\$830	KM 본예배	18
주정(주일)	\$143	주일학교	7
감사헌금	\$530		
선교헌금	\$60		
주일학교	\$		
제단헌화	\$20	창립기념	\$3,000

새가족 등록절차 안내

- ◆ 남부뉴저지교회에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 ◆ 새가족 등록과정: 새가족 교육 (4주)과정을 마치시고 담임목사의 심방을 받으시면 속회에 배정이 되시고 남부뉴저지교회의 등록교인이 되십니다.
- ◆ 새가족 교육일정: 교회소식란에 교육일정을 공지합니다.
- ◆ 새가족 환영식: 새가족 교육을 마친신 그 다음주일 본 예배시 환영식을 갖습니다.

7월 친교 / 헌화

7	여선교회 / 박인자권사
14	채정원집사 / 최미경집사
21	윤지은집사 / 윤지은집사
28	윤여옥집사 / 연선희집사

교회를 섬기시는 이

담임목사: 박태열	교육협동목사: 박태익
중고등부간사: Rebecca Henry	
지휘자: 연석운	반주자:
시무장로: 이건형	
원로장로: 이우인 최종인	
파송선교사: 문열림 주은혜(기쁨,거룩): 사국	
협력선교사: 김희기 박경선(진서,진후): NY 캠퍼스	
신현재 강지혜: 도미니카공화국	